



지난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사회적 가치 식음매장 오픈행사를 열었다.

### ‘착한매장’ 인천공항 스타트업 ‘희망날다’

매월 수익 10%, 미혼모 시설 기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식음매장인 ‘희망날다’ 1, 2호점이 지난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개점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 사회적 가치 실현 식음매장 ‘희망날다’는 인천공항내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영업매장이다. 공항공사는 ‘희망날다’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장 임대료를 면제하고, 설비 및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등 매장 개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했다.

이번 개점에 앞서 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식음사업자인 롯데GRS(대표이사 남익우)와 함께 8월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품평회, 심층면접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희망날다’ 1호점으로 개점한 ‘CAFE 청해음’은 청년들이 창업한 매장으로 과수 농가와 상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매월 수익의 10%를 미혼모 시설에 기부한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해남 저울질 발표는 언제쯤... 기약없는 기다림

후보지 영암·신안, 사실상 배제 이전 본부, 1년간 무안 18차례 방문 광주시 “발표해야 후속 작업 속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됐지만, 지역민 반발과 이전 추진 기관 간 입장 차로 선정 발표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민간공항이 있는 무안이 유력하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론화 성사 여부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게 됐다.

5일 국방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등은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과 해남군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지역별 타당성,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애초 후보지였던 4곳 중 영암, 신안은 사실상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해남보다는 무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전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무안을 18차례 방문하고 지역 주요 인사들의 이전 찬반 성향 등 동향까지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무안 시민사회의 이전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무안 유력설’에 선을 그었다. 해남은 아예 방문조차 하지 못했지만, 무안군과는 전남도를 통해 그나마 몇차례 접촉을 해온 터라 상대적으로 무안이 부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하면서 반대급

부로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항 시설 집적화 등 측면에서도 무안의 입지적 특성을 가늠어 보기는 어렵다. 광주시는 무안이든, 해남이든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는 광주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국방부에서 관망하고 있는 듯하다”며 “발표가 이뤄져야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협의해야 한다”며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고도 화성시의 결사반대로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수원의 사례를 봐도 최소한의 주민 사전 동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 안성시보건소, 아름다운 이별 ‘웰다잉’ 특강

안성시보건소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웰다잉(well dying)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웰다잉’이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특강은 안성시보건소, 공동육산사무소, 동안성 시민복지센터에서 11

월~12월, 매주 수·목요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70세 이상 어르신 460명을 대상으로 ▲멋진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노년의 자기관리 ▲존엄한 마무리 ▲착한 이별 ▲노인 인권존중 ▲자산관리, 유언상속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사랑과 용서 ▲새로운 인생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8회차로 진행된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 “올해 마지막 단풍보며 곡성서 함께 걸어요”

오는 16일 절정에 이른 가을단풍과 함께 옥곡면 괴일산에서 금년 마지막 곡성군 토닥토닥 걷기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걷기에는 올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만큼 평소보다 대규모로 치러진다.

특히 곡성군 산악연맹(회장 이등로)이 주관하는 곡성군수배 생활체육 등

반대회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곡성군 11개 읍면 산악회원과 주민 등 최소 500여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토닥토닥 걷기 주최측인 곡성군은 걷기행사 시기를 산악회 행사 일정과 맞춤으로써 더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단체와 상생한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부산시, 태국 현지서 마이스 시장 공략

오늘 ‘방콕 부산단독 마이스 로드’ 시장 다변화, 공격적 마케팅 전개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019 방콕 부산단독 마이스(MICE)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일본, 중국 마이스(MICE) 시장 위축에 따른 시장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태국 현지 타깃 마케팅으로 마이스(MICE) 유치 증대와 태국 인센티브 여행단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비즈니스 상담회와 부산 마이스 나이트(BUSAN MICE NIGHT)로 구성되며 사전·사후 세일즈콜도 진행한다.

태국의 방한객은 지난 2018년에는 약 558천 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약 10%가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부산에서 촬영된 태국 TV 드라마 ‘아내’가 현지에서 방영되



지난 2일 열린 제15회 부산불꽃축제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부산시

기도 하였다.

태국의 수도 방콕은 앞으로 인센티브 관광단과 국제회의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산과는 2011년 7월에 도시 간 교류협력을 체결했으며 주 70회 직항이 운항한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태국의 마이스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 업계의 경쟁력은 한층 개선될 것이며,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5일 “한일, 한중 관계 경색으로 다소 위축된 마이스(MICE)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다변화와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태국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지역 업계와 함께 선제적 마케팅을 전개하여 다른 도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최인각 기자 remark@

### 흑산 홍어잡이, 국가어업유산 지정 탈락

신안군 홍어 숙성방식 설명 부족 홍어잡이 어가 7곳 계승여부 의문

신안 흑산도 홍어잡이의 전통어업 방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에서 탈락했다.

전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신안흑산 홍어잡이’가 탈락했다고 5일 밝혔다.

신안군의 흑산 홍어잡이는 지난 5월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8월 25~26일 심사평가단의 현장평가, 지난 10월 22일 최종 평가 등 3차례의 심사를 거쳤다.

지난 5월 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신안 흑산 홍어잡이’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안을 요구했으며, 군은 이를 보완해 2차 평가

를 마쳤다.

하지만 처음 보안이 요구됐던 지속 가능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흑산도에서 홍어잡이를 이어가는 어가는 7곳에 불과하고, 이들 어가들이 홍어잡이를 그만둘 경우 현재 어업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한 맛이 일품인 홍어 숙성 방식 등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신안 흑산의 홍어잡이는 19세기 후반까지 민낀시 주낙(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을 이용했다.

1980년대부터 한개의 고리(길이 약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의 흑산홍어 위판 모습. /뉴스1

85m)에 바늘 450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화됐지만 주낙을 이용하는 전통어업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홍어잡이에 앞서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풍어제도 현재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1 | 해질 17:29

11월 6일 (수) 음력: 10월 10일

수도권 날씨 6~1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백령도 10/14, 파주 1/15, 인천 8/14, 수원 7/15, 평택 4/17, 서울 6/16, 양평 5/16, 용인 7/15, 가평 1/15, 동두천 2/16, 연천 1/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